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 2011년 임원수련회 기초강연 -

☉ 손봉호

##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다

각 나라마다 동물이 우는 소리를 다르게 듣는다는 사실은 참 재미있다. 예를 들어, 닭이 우는 소리를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꼬까두둘두’라고 듣고 독일에서는 ‘키계리끼’, 프랑스에서는 ‘꼬꼬리꼬’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의 귀는 ‘꼬끼오’라고 듣는다. 그런데 실제로 닭은 어떻게 울까? 분명히 같은 닭이 울지만 듣는 귀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짐승이 우는 소리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마도 모든 현상에 대한 인식도 그럴 것이다. 조금 더 추상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들어가면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 짐승이 우는 소리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삶의 의미와 목적, 죽음이란 무엇인가, 내세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다. 세계관이란 이미 만들어져서 그것을 수용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

다. 실제로 우리는 비기독교 세계관적인 문화에 감염되어 있다. 닭의 우는 소리를 정확히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에 의해서 그 문화에 따르는 세계관에 감염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이란 우리의 목표라기보다 이미 감염되어 있는 이 문화에서 벗어나 비판적이고 치유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문화결정론적인 시대

문화적인 단위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오늘날은 문화가 매우 중요한 문화결정론적인 시대에 들어왔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문화라는 것이 다 동일하며, 차이라면 발전된 문화와 후진적인 문화라는 발전의 차이 선상에서 인정했지 내용의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문화인류학자의 에스키모 문화 연구가 시작되면서부터 ‘에스키모 문화가 서양문화보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일 뿐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



문화의 성격은 역시 종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이것은 누구도 더 이상 질문 하지 않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공리(公利)가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문화라는 것은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다.

있고 이후 문화상대주의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일반화되었다. 그렇다면 문화는 어떤 것에 의해 결정되는가. 여기에는 문화풍토론이 있다. 기후가 온대지방인가, 한대지방인가, 사막지역인가, 산간지역인가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문화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풍토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풍토론은 전면 수용하는 학자는 없다. 문화의 성격은 역시 종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이것은 누구도 더 이상 질문 하지 않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공리(公利)가 종교이기 때문이다.

문화권을 나눌 때 기독교문화권, 불교문화권, 이슬람문화권으로 나뉘는 것을 보면 종교는 아직까지 문화권을 구분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미 어떤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고 시작했다. 아브라함 또한 갈대아 우르의 우상문화에 속해 있었을 때, 부르심을 받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여기에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다.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가나안 거민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이라고 하신 것을 볼 때도 알 수 있다. 그들이 살아있다면 조만간 이스라엘백성들도 그들을 따라 우상숭배하게 될 것을 아셨기에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다. 그만큼 종교적인 문화라는 것은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다.

기독교는 땅위의 사람이나 혹은 전통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기독교는 그런 세계관이며 문화이다. 아직까지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성경적인 문화는 존재해 본 적도 없고, 아마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국문화라는 세속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인 문화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세상을 중립적인 의미의 세계로도 많이 표현하지만, 그보다는 죄로 물든 세계,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세계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란 비성경적인 공리에 의해서 형성된 문화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쪽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 세속화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문화를 세속화 되었다고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을까? 세속화라는 말은, 1700년에 처음 공식용어로 사용되었는데, 가톨릭 교회의 소유로 되어있던 땅을 민간인의 일 반토지로 바꿀 때 세속화시킨다는 표현을 썼다. 오늘날의 세속화란 비신격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과학의 발달로 하나님 없이도 자연환경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이다.



한국문화는 또한 아주 세속화에 적합하게 되어있는데 한국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샤머니즘과 유교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신론이다. 또한 샤머니즘과 유교는 내세를 부인하며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한국의 문화를 특징짓는 이들 두 종교는 철저히 현세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두 다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현세중심적인 문화는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남보다 앞서야 하기 때문에 경쟁심이 강한 문화를 형성해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경쟁적인 분야의 탁월함에 비하여 비경쟁적인 부분은 낙후되어있다. 특히 윤리성을 살펴보면 오늘날 한국사회에 만연한 배금주의와 체면문화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인 아닌 사람들의 평가에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기독교세계관이 나가야 할 길

한국의 기독교는 현재 이런 상황 속에 처해있다. 그렇다면 세계관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는 샤머니즘, 유교가 만들어 놓은 현세중심적 세계관을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더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의 한국은 교회가 앞장서서 현실사회에서의 성공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사람은 전 국민의 17.6%밖에 안 된다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과학적으로 따져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삼위일체, 동정녀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이러한 과학의 범주를 뛰어 넘는 사실들은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파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증인’이란 믿음직한 증인을 말한다. 단순히 충성, 봉사,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라는 것이다. 그런데 신뢰도 17.6%라는 수치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한국문화의 부정적인 면들, 특별히 성경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바꾸는 활동을 해야한다. 성경적인 문화로 사회를 바꿔야 하는 것이 세계관 운동이 할 일이다. 기독교는 물론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말씀만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기독교에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말씀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다. 즉 우리 삶에 믿는 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이론적인 연구와 노력도 많이 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가 발견한 옳은 길을 따라서 살고, 믿고 활동하는 것을 겸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이 확산될 때에 기독교가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와 사회에 이로운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힘쓰자.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문화포럼 대표이사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